

## 제주문화예술재단 '무난한 업무처리 평가'

도 감사위 지난해 감사결과 발표...수범사례도 눈에 띠어

고창일 기자 , 2008-01-28 오전 10:57:27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펼친 결과 징계 1명, 재정상 32만8000원 회수, 행정상 조치 10건 등으로 비교적 무난한 업무처리를 보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인사분야의 경우 직원 인사기록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업무추진실적, 경력 등의 평가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을 임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내규외 가이드경비 지급, 보조금 등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도 지적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전국 15개 재단 중 2위로 지역문예진흥사업 지원금을 교부받은 점 및 문화예술관련 각종 도서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 점은 수범사항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재단 육성기금 보조상한액 조정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비롯해 내규 및 별도 규정의 합리적인 정비, 직무연찬을 통한 내부역량 강화, 문화유산 발굴 전문인력 확보 등을 문화예술재단에 요구했다.

---

2008-01-28 오전 10:55:55 © < 저작권자 © 이슈제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